

피터스 교수의 「복제의 충격과 신학의 반응」에 대한 논평

길희성*

이 논문에서 피터스(Peters) 교수는 인간복제를 “신학적인 논제”로서 다루고 있다. 인간의 자연과 신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와 관련된 궁극적인 질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복제는 실로 신학적인 논제가 될 수 있다. 피터스 교수는 현대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진전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와 문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며 나아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그의 대답에 못지 않게 그 논제 자체도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각 종교계는 글자 그대로 이 같은 엄청난 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 받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어 온 동물과 인간에 대한 복제 실험들을 언급한 후, 피터스 교수는 인간복제에 대한 세계 저명인사들의 반응—대부분 부정적인—에 관하여 논하였다. 피터스 교수의 요지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독특한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잘못된 신학적 주장과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터스 교수가 인간복제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가 잘 간파하고 있듯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은 인간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면서 그들에 대한 상품화가 행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피터스 교수는 성장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형이 동일한 표현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의 예를 쌍둥이에게서 들고 있다. 그렇다면 DNA 기증자와는 다른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서 성장한 복제인간들의 경우에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표현형의 차이가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며 오히려 그

* 서강대 교수, 종교학

개별성이란 것이 차라리 각 개인의 유일한 영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복제는 여전히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우리의 영혼은 “표현형이 유전자형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처럼 DNA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은 결코 복제될 수 없다. 피터스 교수에 따르면, 영혼이란 “신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부속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즉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결정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복제에 의한 개별성의 상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영혼에 대한 피터스 교수의 상대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 하나는, 인간의 내부에 있으면서 이처럼 신과의 독특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오직 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아니면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간학적인 (anthropological) 토대가 있는 것일까?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의식을 갖게 되는 그 찰나에 신은 각 개인에게 유일한 영혼을 부여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 자신이 복제에 의해 태아를 생산할 때에도 신은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한편 복제가 어디까지 인간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행위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식의 설명으로써 복제 또한 신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 피터스 교수는 계속해서 유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것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쌍둥이는 자동적으로 인권이나 존엄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복제가 인간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쌍둥이들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피터스 교수에 따르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자연이 행하는 것이 인간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갖는다는, 이른바 “베일로 덮인 자연주의(veiled naturalism)”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스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는 것이 그 자체로는 인간의 개별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자연스럽게 결정된 쌍둥이와 인공적으로 생산된 복제아동들 사이에 도덕적 입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나는 피터스 교수에게서도 대단히 중요

하게 다루어졌으며 우리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아동 상품화라는 바로 그 위험성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나는 인간에 의한 인간 생산과 아동 상품화 사이에는 본질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의 생산 행위와 자연적인 결과로서의 생산 사이에 분명한 도덕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道家에서 “자연은 행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행한다(無爲).”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은 목적의식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반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 때 그렇듯이, 인간의 생산 행위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의도와 “설계”를 수반한다. 일단 우리 인간들이 아이들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의도대로 그 아이들의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마치 재봉사가 만든 옷이나 맞춤 상품들처럼 그 아이들을 “설계”하거나 “주문”하는 것에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볼 때 이 논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구성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개체성(individual identity)은 분명 인간 존엄성의 배후에 있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피터스 교수는 이 점을 질문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개체성이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의 유일함과 동일시되거나 그것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이다. 나는 영혼의 개별성—만일 그것이 복제된 인간의 경우에조차도 보증 받을 수 있다면—이 신체적인 개별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구별되는 명백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쌍둥이를 포함하여—보다 더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한, 나는 신체적인 개별성이 한 사람의 개체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개별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에 있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대치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품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대치(代置)될 수 없고, 대체(代替)될 수 없으며, 교환(交換)될 수 없고, 그 개별성은 양도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인 한,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개별성이 동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사함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란 결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없는, “그 스스로가 목적인 존재들이며, 그들 자신의 권리에 있어 가치의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며, 우리들에 의해 신중하게 생산된 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는 복제된 아이도 포함이 된다. 인위적으로 생

산된 아이들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순수한 선물은 오로지 자연이나 신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다. 선물은 글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구 혹은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 주어진 것만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다.